



“권력 좇아 ‘원맨’?”... 회전문 인사 비판도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과거 진보정당 안 예정자 정치이력과 다른 행보 도마부지사 역임 후 하향응모에 다양한 해석·의혹도 제기

과거 진보정당 소속으로 활동을 펼쳐왔던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가 보수성향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지명을 받으면서 안 예정자의 정치성향 및 행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원 도정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안 예정자에 대한 ‘회전문 인사’와 ‘내정설’에 대한 비판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원 지사의 대권행보 속에서 안 예정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인사청문회 위원의 다양한 해석과 의혹이 제기됐지만 안 예정자는 원 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일을 하기 위해 시장에 응모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안 예정자가 1급인 정무부지사에서 2급인 행정시장으로 하향 선택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두 번씩이나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 도정의 성공을 위해 이제 정말 한 몸으로 땀 흘려야 한다고 아예 결심을 하셨거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안 예정자는 “아니다. 민선 7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기가 공약한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게 제주도와 시의 발전인데 거기에 같이 도정 업무를 수행했었기에 행정시장으로 가도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전반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예정자는 강 의원의 “원 지사 정치행보와 예정자의 정치행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한 배를 뒀고, 원도정 민선 7기 성공을 위해 자처하신 일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일하기 위해서 시장에 응모했다”며 부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두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권력의 자리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없지 않다”면서 “지금까

지 정무부지사 임명과 연인, 시장자리까지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에는 ‘원맨’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는다”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의 대권행보 타임에서 ‘회전문 인사’를 통한 지명 배경에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도 전했다.

안 예정자는 협치 차원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일치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원 지사와 같은 당적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 강중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원 지사의 안 예정자 지명 배경과 관련 “회전문 인사(이야기)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동우 전 정무부지사를 이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도의원 3선과 정무부지사 역할 등을 통해 검증된 후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이날 안 예정자는 반복되는 ‘내정설’의 현실화와 권고 수준의 인사청문보고서에서 비롯된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관련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특별위는 29일 김태업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두 예정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법사위 놓고 물러섬 없는 여야... 국회 원구성 진통에 갈등 커진다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예고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의 갈등이 깊어져 향후 제주 현안들의 여야 협력에도 난항이 우려된다.

여야는 지난 5월 국회 개원 이래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법제사법위원회 장정걸을 뽑았다. 이미 민주당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행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원장을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미뤘으나 이날은 무조건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내달 4일 회기가 종료된다. 국회·부미한기자



“항만 물류비 절감으로 위기 극복”

항만 노사정 공동 선언식 항만하역요금·임금 동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항운노조, 제주항만물류협회가 항만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청 백률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 노·사·정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경택 항운노조위원장, 고영철 항만물류협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선언식에서 “제주항만은 제주지역 전체 물동량의 97% 소화하는 제주물류의 심장과 혈관”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이 제주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가계 안

정,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택 항운노조위원장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만하역요금 동결과 무분규 선언 등으로 제주지역 노사정의 산업평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철 항만물류협회장은 “제주항만물류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정책파트너로, 그리고 항만노동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제주경제의 대동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항운노조, 제주항만물류협회는 선언식에서 2020년도 항만하역요금 및 항만노동자 임금 동결과 산업평화를 위한 무분규를 선언했다. 이태훈기자

“과거 음주운전 깊이 반성 시민과 통하는 시장될 것”

안 예정자 공약·각오 밝혀

안동우 민선 7기 제주도정 후반기 제주시장 예정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갈등 해결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장 시장실 운영’ ‘갈등 해결 및 예방기구 운영’ ‘균형있는 발전’ ‘아동친화도시 조성’ ‘코로나19 분야별 대책 수립’ 등이 안 예정자가 내건 공약이다.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20여년 전 음주운전 전력 논란에 대해 후선 사과했다.

안 예정자는 “제주시장 내정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과거 음주운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 부족함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잘못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로써 보답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안 예정자는 “시민과 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현장 시장실 운영을 약속했다. 또 ‘갈등 해결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갈등 해결 및 예방기구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신장장애인 투석혈관수술비 지원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제주자치도의 지침에 따라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혈관·복막 투석비용 지원(본인 부담액 50%)은 지속하고,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해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투석혈관수술비는 신규 사업으로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제주시에서 검토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인데, 올해는 5억 4300만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혈관·복막 투석비 419명, 투석혈관수술비 12명 등을 지원했다. 문미숙기자

더하기 어디한번 날아볼까?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꿈더하기 창업교육 2기 교육생 모집

교육 7.8~7.9 (수) 6.30(화)~선착순 마감시까지

- 과 정 명 : 2020년 소상공인경영아카데미 꿈더하기 창업교육 2기 과정
- 교육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제주도민 20명 선착순 모집
- 교육내용

일시	교육내용	강사
7월 8일 (수)	10:00-12:00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 민법	오재영 변호사
	13:00-15:00 제주 창업아이템과 상관분석	박수영 경영지도사
	15:00-17:00 소상공인 노무 관리	김진세 노무사
7월 9일 (목)	10:00-12:00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관리	고성훈 세무사
	13:00-15:00 자영업의 세계	조유동 대표
	15:00-17:00 소상공인 신용 및 채권 관리	강동균 제주신용보증재단

- 교육장소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의를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 수료 : 5과목(10시간)이상 수료시 이수증 발급
- 수료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창업기업(최대 5,000만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심사 시 우대혜택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jejusc.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전화접수 (교육비 전액 무료)
- 접수 및 문의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 758-5710-1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일시 : 2020년 06월 30일 11시
장소 : 제주 토평 마을회관 2층 회의실

일시 : 2020년 06월 30일 16시
장소 : 제주 위미2리 다목적 복지회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064-742-0135) 김보근 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064-710-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희망자 모집

도민자본에 의한 에너지개발사업 투자 촉진으로 도민소득 증대계기를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투자 희망자를 모시고자합니다.

- 투자금 모집 내용**
 - 투자자금 모집 액: 10억 원(10구좌, 1구좌 1억원)
 - 1인 투자자금 응모한도: 3구좌이내
 - 투자금 모집 기간: 2020.6.30(화)일까지
 - 응모신청 방법: 전화상담 후 면담 결정
- 투자금 상환 및 이익배당**
 - 총 투자금 상환 기간: 8~10년, 3년마다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희망자에 한하여 상환 가능
 - 투자금 회수 기간 동안 이자지급: 연리 4.5%, 매월마다 지급
 - 투자금 전액 상환 후 이익 배당: 매년 당기 순이익의 45%(연간 약 50백만원 예상)를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당
- 기 타**
 - 투자금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투자금 상환 시까지 투자자 위원회에서 회계 관리 전담

▶ 투자금 응모 상담 연락처 **010-5657-1748**

성현에너지개발주식회사